

11-1312000-000089-14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간막이를 없애 소통·협력하여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입니다.

행복이의 정부3.0 답사기 / 2014 봄 [春]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행복이의 정부 3.0 답사기

春 봄



contents

안녕하세요~ 행복이입니다.

정부가 보유한 정보의 개방과 공유 그리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정부운영인
정부3.0의 현장을 접하고 소개하는 아이입니다.
국민여러분! 이제 저랑 함께 가볼까요?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 006** 환경부 우리집 수돗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지 클릭 한 번으로 OK~
- 010** 국세청 영세 납세자라면 걱정 뚫! 국선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드립니다
- 016** 특허청 특허에서 상표, 디자인까지 한 번에 신청하고 한 번에 심사 받으세요
- 020** 농림축산식품부 산간벽지 구석구석 의료, 법률, 문화를 싣고 행복버스가 찾아갑니다
- 024** 식품의약품안전처 CT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 기록·관리, 국민건강을 위해 시작합니다
- 028** 경찰청 체류기간에 따라 3단계 맞춤형 치안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 034** 관세청-국세청 부처간 과세자료 공유로 탈세 및 체납기업을 쏙쏙~ 잡아냅니다
- 040** 안전행정부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로 금융사고를 막는다!
- 046** 교육부 참여하고 체험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부3.0이 활짝 열어갑니다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 050** 국토교통부 도로이용불편, 내가 쉽게 신고하고 내가 직접 평가합니다!
- 056** 기상청 국민들이 기상정보를 스스로 만드는 시대 '스마트폰 날씨제보 시스템'
- 062**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의 꿈, 알토란같은 정보로 실현하세요!
- 068** 경기 수원시 500인 원탁토론, 수원의 미래교통 우리가 만들어요!
- 072** 통계청 해법은 공기처럼 물처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KOSIS 공유서비스!
'국가통계포털(KOSIS) Open API 제공'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말도 많은
수돗물, 정말 그냥 마셔도 되나요?

**우리집 수돗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지
클릭 한 번으로 OK~**

환경부



서울 관악구에 사는 37세 주부 A씨. 아토피 증상이 있는 큰 아이 때문
에 시금치 한 단도 깐깐하게 따져보고 유기농 제품으로만 구입하는데
하루 중 가장 많이 마시는 물에 대해선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다른 곳에서는 ‘안
전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빠듯한 살림에 매번 물을 사 마시
거나 정수기를 설치하자니 부담되고... 우리집 수돗물, 그냥 마셔도 괜
찮을까? 고민 끝에 인터넷 검색 중 눈길을 사로잡은 내용이 있었다.
‘수돗물 안심확인제? 이걸 뭐지?’

믿을 수 없다면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

각 지자체에서는 가정을 방문하여 수도꼭지 수질을 무료로 검사해주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서울은 ‘아리수 품질확인제’, 부산은 ‘가정 수도물 무료 점검서비스’ 등 제도의 이름이 다르고 검사항목이나 신청 절차도 달라서 국민들이 이러한 제도의 존재 여부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도물을 보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2014년 3월 22일부터 ‘수도물 안심확인제’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선 각 지자체별로 다른 수도꼭지 수질 검사 제도의 명칭을 ‘수도물 안심확인제’로 통일하고, 환경부가 운영 중인 ‘물사랑 홈페이지’(<http://www.ilovewater.or.kr>)에서 원스톱으로 온라인 접수 및 확인이 가능토록 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쉽게 우리집 수도물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수도물 안심확인제, 클릭 한 번으로 접수에서 결과 확인까지

우리집 수도물 수질을 체크해보기로 결심한 주부 A씨. 물사랑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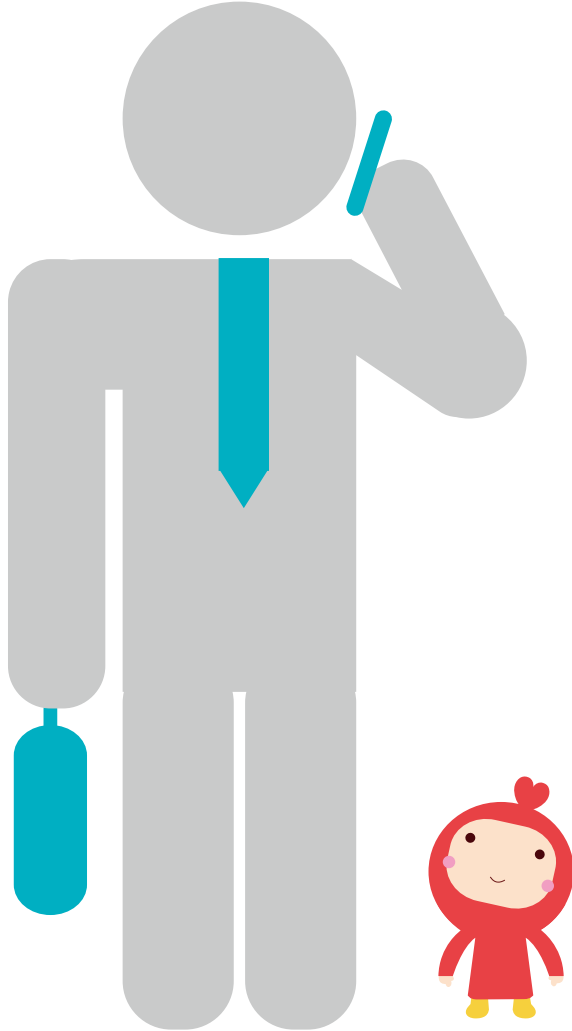
지를 들어가 보고는 절차가 너무나 간단해 깜짝 놀랐다. 우선 이름과 주소, 연락처, 그리고 방문 검사날짜까지 기입하고 클릭하니 끝!

신청서는 접수 즉시 해당 지역 상수도사업본부로 전달, 담당자가 최대 3일 이내에 신청일자 방문 가능여부를 검토,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채수를 위한 방문 실시, 채수 후 8일 이내 수질검사 실시, 검사 후 2일 내 결과 통보, 총 20일 만에 주부 A씨는 검사 결과를 확인하게 되었다.

수도물 안심 확인제, 무엇을 검사해 주나?

신청 시 우선 법정 수질검사 8개 항목을 1차 검사하고, 기준 초과 시에는 먹는 물 수질기준 59개 전 항목에 대한 2차 검사를 실시하여 안정성을 정밀하게 점검한다고 하니, 수도물 안심 확인제 하나면 이제 우리집 물은 걱정 끝이다.

현재 수도물 안심 확인제는 7개 특·광역시만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금년 10월부터는 시·군 단위까지 확대 시행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수도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여 선진 물복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았는데
돈이 없어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고
혼자 불복청구 하자니 세법도 모르고, 방법이 없나요?

영세 납세자라면 걱정 뚝!
국선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드립니다

국세청



김포에 사는 A씨, 대기업을 명퇴하고 시작한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많은 빚을 떠안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마지막 희망으로 월세 50만원 10평 남짓 음식점을 시작했다. 부부가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식당은 주변에서 유명세를 탔고 빚도 조금씩 갚아 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세무서에서 소득세 신고에 문제가 있다는 통보와 함께 억울하게 소득세 900만원이 고지되었다.

A씨는 세법지식도 부족하고 식당일도 바쁜터라 세무대리인을 선임하

려 했으나 비용이 만만치 않아 자포자기 하고 있던 차에 세무서 담당자로부터 국선세무대리인 지원 대상으로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무료로 지원해 주는 세무대리인이라 내심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선정된 국선세무대리인은 실력과 경륜을 두루 갖추고 마치 자기 일처럼 성실하게 A씨의 불복청구를 대행했다. 국선세무대리인은 A씨에게 부과된 세금은 잘못된 것임을 근거자료와 법령해석을 통해 명확히 제시했고 그 결과 세금 900만원은 모두 취소되었다.

영세납세자는 세금에 이의가 있어도 세무전문가 선임 어려워...

납세자가 과세처분을 받은 세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세무관서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세금부과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영세납세자는 불복청구를 제기하더라도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렵고 세법지식도 부족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함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지식기부에 참여한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마련하여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하였다. 지원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개인(보유재산 3억원 미만)으로서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납세자이며, 영세납세자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법인납세자, 복식부기의무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어떤 과정을 거쳐 시행되었나?

이 제도는 시행 초기 세무대리업계의 업무영역 잠식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2013년 말부터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련단체에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냈고, 2014년 초에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2014년 2월 지식기부에 참여할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총 237명을 위촉하기 위하여 공모를 실시하였다. 무보수 지식기부라는 점에서 호응도가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700명이 지원하여 3: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 구성 또한 신규개업자, 대형로펌 소속 저명인사, 베테랑 경력자까지, 연령별로 30대부터 70대까지,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세무대리인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급 세무관서는 지원자 중 총 237명을 위촉하여 2014년 3월 3일 뜨거운 호응 속에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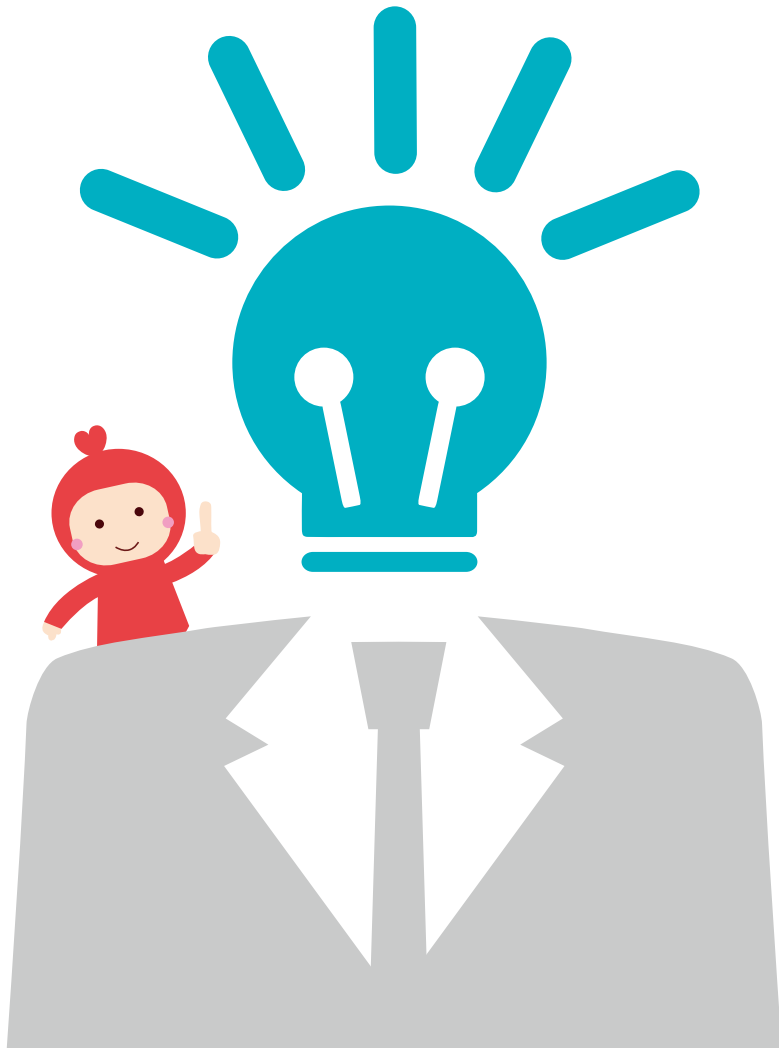
국선세무대리인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서를 접수하면 세무관서에서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제도안내, 지정신청, 지정통지 등의 절차를 원스톱으로 쉽고 빠르게 제공한다.

국세청,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노력은 계속된다.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는 취약계층의 세무·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시켜주고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한층 강화해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 기준 지원대상 해당자는 약 620건으로 추산(전체 이의신청, 심사청구 건수의 11.5%)되며 2014년은 약 800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의 대표적인 맞춤형 서비스인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는 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수혜 대상자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신제품 출시가 급한데
특허 따로, 상표 따로, 디자인 따로
언제 심사 받고 언제 출시 하나요?

**특허에서 상표, 디자인까지
한 번에 신청하고
한 번에 심사 받으세요**

특허청



기업은 여러 지식재산권을 한꺼번에 확보하기를 원하는데...

A社は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하여 최고급 스마트 냉장고를 출시할 예정인데 출시 후엔 전 세계 가전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북미·유럽으로 판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스마트 가전 시장의 경우, 일반적인 냉장고에 쓰이는 냉매기술(특허) 외에도 스마트 기능 구현을 위한 통신기술(특허)과 브랜드(상표) 및 외관(디자인)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지식재산권들로 무장한 제품을 조속히 출시하여 경쟁자 진입을 저지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출시 예정 제품에 관련된 복수의 지식재산권 출원 신청을 하였으나, 특허, 상표, 디자인 권리별로 심사 처리기간이 상이하어 A社가 희망하는 출시 시점에 필요한 지식재산권들을 획득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특허청, 기업의 사업전략에 따른 맞춤형 심사서비스를 고민하다.

하나의 제품은 다수의 특허, 상표 및 디자인의 집합체이다. 우리나라 수출 주력상품인 스마트폰과 자동차는 다양한 지식재산이 결합된 대표적인 융·복합 제품들이다. 하지만 우리 기업이 처한 상황은 만만치 않다. 최근 삼성-애플 특허 분쟁에서처럼 특허(통신기술), 디자인(등근모서리) 등 핵심 지식재산 하나하나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출시 제품을 강력한 지식재산으로 무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 심사는 요소기술별로 분산되어 진행되고 상표나 디자인 심사는 특허 심사와 별개로 진행되어, 기업들이 신제품 출시에 맞추어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적기에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제품 출시가 지연돼 경제적 손실을 입거나, 관련 지식재산권 확보를 못해 경쟁 기업과 특허분쟁 등에 휘말릴 수 밖에 없었다.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심사해주는 일괄심사

이런 산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하나의 완제품에 관련된 복수의 특허를 기업이 원하는 시점에 맞춰 심사해주는 ‘일괄심사제도’를 시범 실시하였다.

이후 기업과 함께 제도를 개선·발전시켜 올해 4월부터 일괄심사 대상을 기존의 특허에서 상표와 디자인까지 확대하였고 신청요건도 대폭 완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담당 심사관들에게 제품을 설명하는 일괄심사 설명회 절차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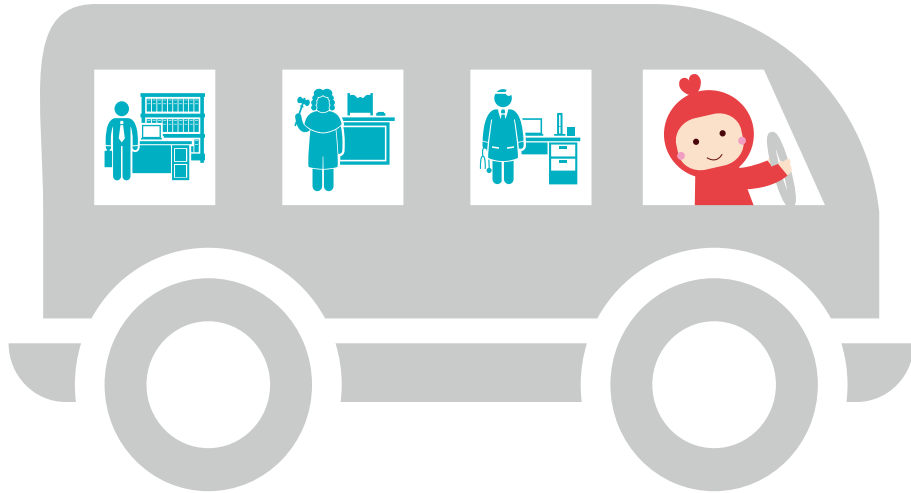
실제로 본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SK이노베이션社가 2차 전지제품(배터리 팩, 케이스, 보호회로 등)관련 지식재산권을, 이어 LG화학社가 슬림TV(디스플레이 장치, 패키징 필름 등) 관련 지식재산권을 일괄심사 신청하여 향후 제품 출시에 맞춰 적기에 관련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에게 수요자 맞춤형 심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본 일괄심사 제도는 특허청 정부 3.0 정책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많은 중소·중견 기업들이 강력한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최적의 타이밍에 출시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부상할 수 있는 사업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산간벽지 농촌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하거나
차가 없어서 병원 한 번 가기도 쉽지 않으셨죠?

산간벽지 구석구석 의료, 법률, 문화를 쉽고 행복버스가 찾아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산업이 고도화되는 동안 농촌과 도시 간에는 문화·교육·의료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였다. 농촌에서는 문화 공연을 관람하거나 병원을 한 번 가려고 해도 사오십분 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가야 할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이 되었다. 실제로 산간벽지 농촌지역 주민들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어도 농촌의 열악한 대중교통으로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A씨는 농촌에서 태어나 한평생을 농업에 종사하며 자식 둘을 공부시킨 농업인이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자식들이 몇 년 전부터 모시고 살겠다고 내려왔지만 아직 은퇴하려면 멀었다며 손사래를 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고 느낄 때가 있었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다보니 그동안 고된 농사일로 불편했던 허리가 말썽을 부리면 물리치료를 한 번 받으러 가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농사 일로 바쁘기도 해 참아보는 일이 부지기수지만 사실 시간을 내보려 해도 산골 오지 마을이다 보니 가까운 병원까지 고개길을 따라 40분을 차를 타고 가야 하기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최근 문화나 의료 등 각종 서비스 시설이 부족하고, 시설이 있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간벽지의 농촌 마을로 직접 찾아가 각종 서비스를 윈스톱으로 제공 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농업인 행복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먼 단위 지역이지만 관내 의료기관이 보건진료소 뿐인 농촌 마을에서 시내까지 가지 않더라도 의료장비를 대동한 의료진들에게 문진부터 엑스레이·초음파 촬영 등 의료검진을 받는 것이다.

이 외에도 평소에 해결하기 어려웠던 곤란한 문제에 대한 법률상담과 선뜻 찍기 어려운 장수사진과 가족사진 촬영에 문화예술 공연까지 농업인 행복버스는 골칫거리와 해묵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는 서비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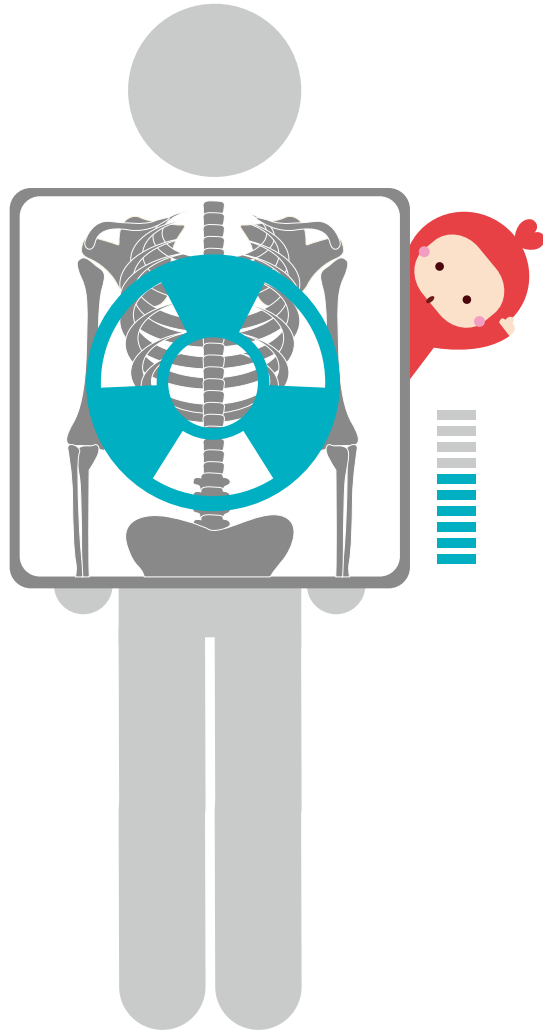
농촌은 면적은 넓으나 마을과 인구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 서비스 시설에 편하게 접근하기 어려워 접근성이 떨어진다. 또한, 여덟 집 중 한 집이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일 정도로 노인 비중이 높다. 결국 건강 상 불편함이 있더라도 병원 한 번 가시기가 쉽지 않았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차가 없는 농촌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했다. 실제로 3월 21일, 올해 처음 운영한 농업인 행복버스에는 1,000여명의

농촌 주민들이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을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이렇게 각종 서비스 시설에 찾아가기 어려운 산간벽지 농촌 마을 주민의 복지·의료·문화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는 농업인 행복버스는 A씨 뿐 만 아니라 자가용이 없거나 특히, 멀리까지 이동이 어려운 농촌의 고령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아닐 수 없다.

A씨는 자기 마을로 행복버스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일주일 전부터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불편한 허리에 대해 무료로 건강검진도 해주는 것도 기대하고 있지만, 읍내로 나가서도 쉽게 접하지 못했던 문화공연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간단한 가전제품이나 자동차까지 수리해 준다고 하니 행복버스가 찾아 오기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9회의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을 올해 50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행복버스를 통해 농업인들에게 직접 찾아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나갈 계획이다.



여러 번 CT를 찍어 방사선 노출이 걱정인데
내 피폭량을 알수 있을까요?

CT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 기록·관리, 국민건강을 위해 시작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맞고 있는 방사선을 ‘자연방사선(연간 2.40mSv)’ 이라 한다. 흔히 사용하는 전자파, 자기파, 가시광선, 적외선도 방사선의 일종이다.

지난 5년간('07년~'11년)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목적으로 실시한 환자 방사선 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국민 1인당 연간 피폭량은 1.4mSv이며, 이중 CT* 촬영이 0.79mSv로 전체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용 방사선 노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자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올해 2월부터 전국 의료기관 대상 CT 촬영 시 발생하는 ‘환자 방사선 피폭량을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국민 개인별 맞춤형 방사선 안전관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CT나 X-ray 같은 의료장비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우리 몸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여 지나갈 뿐이지만, 피폭 강도가 크고, 횟수가 잦으면 유전자가 손상되거나 변이를 일으켜 나중에 암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지금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만 환자별 방사선 피폭량을 산출할 수 있지만, 모든 의사가 식약처에서 배포한 ‘환자선량 기록·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환자의 정확한 피폭량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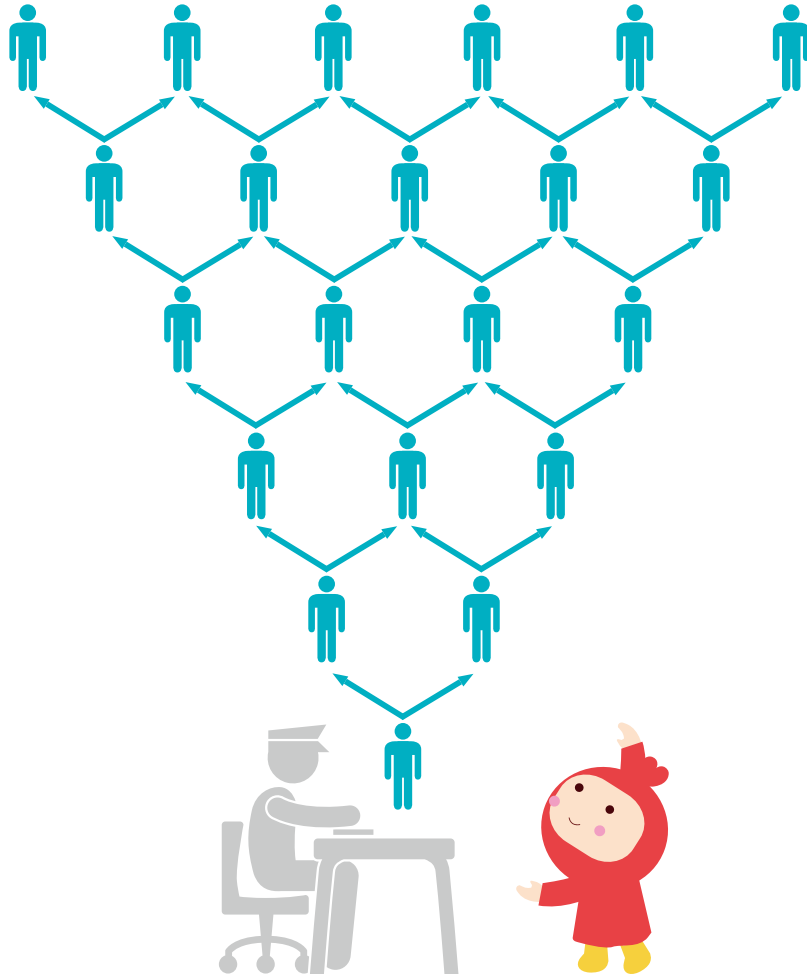
즉 의사는 환자의 CT 검사를 결정하기 전에 누적 피폭량을 확인하고, 단기간에 너무 많은 방사선에 노출된 환자에 대하여 다른 검사(초음파 검사, MRI)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병원은 환자가 원할 경우 환자에게 누적된 피폭량을 알려줄 수 있다.

2015년부터는 일반 X-ray 촬영, 치과 X-ray 촬영 등으로 방사선 안전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며, 환자 개개인의 누적 피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자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의 정보 공유를 위한 「환자 방사선 안전관리법(가칭)」 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mSv : 인체에 흡수된 방사선의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단위

* CT 컴퓨터전단층촬영 : 방사선을 활용하여 뼈나 몸속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기기로 기존 X선(가슴사진)에 비해 피폭량이 20~130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환자선량 기록·관리 시스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서 생성된 방사선 정보를 유효선량(Sv)으로 변환하여 환자 개인별로 기록·관리하는 전산 프로그램. 2012년 식약처가 개발하여 2013년 서울아산병원, 경희대학교병원 등 9개 의료기관에서 시범·운영하여 검증 완료



우리나라에 머무는 외국인이 늘어날수록
치안문제도 늘어나는데 무슨 해결책이 없을까?

**체류기간에 따라
3단계 맞춤형
치안돌 루션을 제공합니다**

경찰청



증가하는 체류 외국인 어찌하오리까?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014년 1월 기준 약 1백56만여명으로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단일민족이라는 인식이 잠재되어 있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수용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외국인 밀집거주 지역 및 외국인이 많이 왕래하고 있는 관광지에서는 한국사회에 대한 부적응, 소외감, 인종 간 갈등 등으로 각

중 사회문제의 온상이 되고 있어 치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안정적 다문화 사회로의 정착 및 우리사회의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귀화자 및 체류 외국인의 안전과 행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범죄예방과 단속으로 외국인 범질서 확립이 가능할까?

그동안 경찰에서는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치안대책을 수립하는 등 발생한 범죄에 대한 수사 등 범인 검거활동에 그 역량을 집중하여 왔다.

그러나 '뉴욕의 깨어진 유리창 이론'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범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범죄의 직·간접 원인이 될 수 있는 제반문제를 해결하는 사전적 치안활동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잠시 머무르다 귀국하는 관광객, 외국인 근로자, 우리사회의 일

원으로서 삶을 같이 하는 귀화자 등 체류기간에 따라 외국인을 분류하여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구상하게 되었다.

외국인 대상별 맞춤형 치안 솔루션 제공

먼저 체류 외국인 및 귀화자를 체류 기간별로 단기 체류자·장기 체류자·귀화자 등 3단계로 분류하고 대상별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마련하였다.

장기 체류자인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에게는 학교 및 사업장으로 진출하여 범죄(피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범죄예방 가이드 리플릿과 소책자를 제작·배부하여 국내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스스로 준범질서를 확립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귀화자에게는 운전면허교실 등 다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찰과의 접촉기회를 높이고 학교폭력·아동학대 등의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하게 처리할 뿐 아니라, 결혼이주여성들이 사회봉사 활

등 등을 통해 우리문화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치안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 등 종합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단기체류자 특히 짧게는 2~3일에서 길게는 1개월 정도 체류하는 관광객을 위한 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조직이나 정책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그래서 경찰청은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관광객 지원 및 질서확립 활동 등 모든 관광 관련 업무를 전담으로 맡기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2013년 10월 16일 관광경찰대를 발족시켰다.

관광경찰대 출범으로 정부3.0 실현 및 새로운 관광 문화 창출

관광경찰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각종 불법행위와 불편사항 해소 등 관광문화를 새롭게 열어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택시 등의 바가지요

금·가격 미표시·무허가 게스트하우스·무자격 가이드·성매매 알선 행위 등을 단속하였으며, 어려움에 처한 관광객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등 관광한국의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이 문체부·한국관광공사·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같이 고민하고 협업한 결과, 관광경찰대는 언론과 국민에게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BH에서 선정한 숫자로 보는 박근혜 정부 1년의 13개 성과 중 1개로 선정되는 등 정부3.0의 롤 모델로 주목 받고 있으며 올해는 부산과 인천에도 관광경찰을 추가로 창설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우리사회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귀화자 및 체류외국인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서 항상 함께하는 외사경찰이 될 것이다.



조세회피 기업들은 날로 지능화, 다양화 되는데
현실적인 세금 추징 대책이 있나요?

부처간 과세자료 공유로
탈세 및 체납기업을
쫓쫓~ 잡아냅니다

관세청-국세청



다국적기업인 A사는 2010년부터 기업형태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였다. 유한회사는 재무제표 등이 공개되지 않아 많은 내부자료를 비밀로 할 수 있어 이 재무정보를 별도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 기업에 대한 사전 위험분석이 어렵다. 하지만,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A사의 손익계산서 등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확보

한 후, 수출입실적·외환거래 내역 등 관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를 융합하여 A사에 대한 정밀 분석을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A사가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로열티와 디자인비용 236억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관세 등 탈루세액 66억원을 추정하였다.

관세청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소통과 공유, 협력이라는 정부3.0에 기반하여 국세청 등 타 정부기관과 과세자료 공유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고위험 다국적기업 등의 조세회피 행위가 날로 지능화, 다양화 되는 현실 속에서 관세청이 다양한 과세자료를 융합하여 위험 분석을 고도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엄정한 관세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기존에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시로 입수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받기 위해 법적인 근거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그 진행과정은 너무나 험난했다. 효율적인 관세조사를 위해 확보가 필요한 과세자료들은 국세청,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의 각 기관 각 과에 산재해 있었고, 상호 관련이 있어 이 자료들을 정리하고 소관부처를 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제출대상 자료를 정하고 소관부처까지 결정이 됐지만, 낯선 타기관을 업무로 파악하여 담당부서를 찾고 담당자를 찾는 것은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것에 버금가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어떤 부처에서는 전화를 7번 돌리고 나서 결국엔 처음에 전화했던 부서로 다시 되돌아 간 경우가 있었고, 어떤 부처에서는 동일한 사안임에도 세부 내역에 따라 담당부서가 달라 관련된 모든 담당자의 의견을 취합하는데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였다. 또한, 국제경기를 주관했던 조직위원회는 해당 국제경기가 종료되면 조직이 해체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 등을 인수받게 되는데 인수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찾아 담당자와 연결되는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하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공유하는 과세자료에 대한 서식을 정하고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 개정안이 준비되었다. 동 개정안은 과세자료 제출 기관과 제출 시기를 정하는 관세법시행령이 2014년 3월 5일에 공포되었으며, 제출자료의 서식을 명확히 하는 관세법 시행규칙은 2014년 3월 14일에 공포되어 27개 기관으로부터 45종의 과세자료를 받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관세청은 이렇게 제공받은 다양한 과세정보를 심층분석하여 수입가격 조작, 부당감면 등 탈세 우려가 높은 업체 중심으로 관세조사 대상을 선별함으로써 성실기업의 관세조사 수감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과는 지난 해 9월 각자 보유 중인 과세자료의 공유 범위를 15종에서 34종(관세청→국세청: 13종, 국세청→관세청: 21종)으로 확대하였으며,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자료, 국제거래 관련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여 이전가격 왜곡 다국적기업 등 43개

고위험 업체를 선별하여 관세조사 중에 있다.

또한,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국세청, 특허청,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세 체납자 재산정보를 실시간으로 입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국세청과 off-line 방식으로 현재 年 6회 공유하는 체납자의 관세·국세환급금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올해 3월부터 시스템 연계작업을 착수하였고, 체납자 재산 조회를 위해 특허청에서 지식재산권 자료를, 국토교통부에서 임대사업자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장등록 자료를 각각 올해 7월부터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예정이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공평하고 엄정한 관세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끝까지 확보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비정상적 탈세관행을 조사를 통해 뿌리 뽑되, 기업들의 정상적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관세조사 제도를 운영할 것이다.



내가 잃어버린 신분증을 위·변조해서
대포통장을 개설하면 어쩌나 걱정되셨죠?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로 금융사고를 막는다!



안전행정부

은행원 A양은 고객을 맞이할 때마다 조심스럽다. 요즘 위·변조범이 사진만 위조한 신분증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이것을 범죄행위에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A양은 고객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신분증 발급기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만 발급기관별로 다른 서비스와 특히 사진 비교가 불가능하여 신분증 진위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많았다.

통장을 발급해 주었을 때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송금통장으로 이용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객의 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에 A양은 항상 책임감이 앞선다.

고객이 금전적 피해를 입는 사례로는 위조한 신분증으로 통장을 개설한 후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여 공인인증서를 부정발급 받아 기존 계좌 예치액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편취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 사례로는 보험 가입정보까지 유출된 경우로 통장, 카드, 보안 카드를 발급 받은 뒤 보험사 창구를 방문하여 고객이 납입한 보험금에 약관대출이나 해지하여 환급 받는 수법으로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금융사고,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로 막는다.

지난 2월, A양은 TV뉴스를 보고 기뻐다. 안전행정부가 8개 기관과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구축·운영하기로 상호 합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3월 17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거쳐 8월부터 서비스 환경이 마련되는 은행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는 내용이었다.

운전면허증 등 5개 신분증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서비스를 실시

할 계획이며 문자정보 뿐만 아니라 사진정보도 진위확인이 되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범죄가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1. 6종의 신분증,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진위확인

지금까지 은행에서는 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 시 금융실명법에 근거해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을 통해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각각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번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외국인등록증 등 6종의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확인 가능하게 되었다.

2. 신분증의 사진, 비교시스템으로 진위 확인

기존에는 위·변조범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 등은 그대로 사용하고, 사진만 정교하게 위·변조하는 경우 은행에서는 본인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신분증에 있는 사진과 신분증 발급기관이 보유한 사진을 비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분증 위·변조 확인의 정확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이처럼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가 시행되면 위·변조된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의 재산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기관의 업무효율성도 크게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1금융권에서의 본격적인 서비스 시행 이후, 제2금융권 등 업계 전반에서 이 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는 정부기관과 민간기관간

시스템·정보 연계를 통해 금융사고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기관간 칸막이를 없애고 민·관 협업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국민편의를 제고하는 ‘정부3.0’의 맞춤형 서비스의 대표적인 실천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작년 6월에 설명회를 열어 은행들의 참여를 유도했고, 신분증 발급기관에 대해서는 방문 회의를 통해 서비스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는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태스크포스에는 안행부 등 신분증 발급기관·금융결제원·14개 은행 등 여러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서비스를 시행·운영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며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중학생들도 교실 안 공부에서 벗어나
자신의 미래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질 순 없을까?

참여하고 체험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부3.0이 활짝 열어갑니다

교육부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 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 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런 의미에서 2014년 3월 11일 교육부와 8개 중앙행정기관간에 체결한 자유학기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은 올해 800여개로 확대되

는 자유학기제 운영 중학교 학생들에게 진로탐색 등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기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의지를 밝힌 것이다.

앞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8개 중앙행정기관은 소속기관 등 시설과 함께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에 연계·제공함으로써, 일터가 중학교 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활동처가 될 예정이다. 즉, 경찰서·소방서가 직업체험의 장이 되고, 범죄예방,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실제 경찰관·소방관의 업무를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진로탐색과 함께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촌교육농장, 농촌진흥기관에서 벼, 과수, 화훼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 농업관련 다양한 기술과 직업군을 탐색하고, 학교 텃밭 운영 등 직접 재배활동도 경험할 수 있다.

산림청은 수목원, 산림욕장, 학교숲 등에서 동·식물을 관찰하고, 천연염색과 목공예와 같은 숲속 산물을 이용한 만들기 등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법제처의 청소년 법제관 사업은 학생 스스로 학교규칙을 마련하고, 이를 지킴으로써 법치행정의 중요성 및 준법정신을 배우게 하는 사업으로, 법제관이 학교로 찾아가 법 교육을 실시하고, 국회·헌법재판소 등 법 관련 기관을 탐방하며 다양한 입법체험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국가보훈처의 독립군 체험캠프, 문화재청의 문화유산방문교육,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현장탐방 등이 학생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자유학기제는 문체부, 여가부 등 타 중앙행정기관과도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등 인프라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여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파손된 도로를 통과할 때 아찔했는데
신고하자니 불편하셨죠?

**도로이용불편,
내가 쉽게 신고하고
내가 직접 평가합니다!**

국토교통부



초보 운전자 J씨는 움푹 파인 도로를 통과하면서 몇 번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지만, 운전 중 전화로 신고하려니 초행길의 위치를 설명하는 것
이 부담스럽고, 또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잊어버려 신고하지 않는 경
우가 많았다. 이처럼 내가 아슬아슬하게 피해간 도로가 뒤이어 따라오
는 수많은 이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지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도로는 등급별로 다양한 기관(고속도로-도로공사, 국도-국토관리사무소, 지방도-지자체)이 관리하고 있으며, 각 도로관리청마다 신고 전화나 앱이 있으나,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그간 이용자들이 낙석, 차선도색 노후화, 안전시설 파손, 포트홀 등 불편사항을 신고하고 싶어도 쉽지 않았다. 또한, 도로 위를 달리는 중이고, 이정표 등 눈에 띄는 시설물들이 주변에 많지 않으면 해당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아 제보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도입 및 도로서비스 평가단 구성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널리 보급된 GPS기반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포장 파손, 낙석, 낙하물 등 이용불편사항을 통합신고 받고 이를 기동보수반과 연계 운영하여 신속히 처리하는『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를 도입하고 도로서비스 평가단 구성을 추진하였다.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어플리케이션(“척척앱”)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이용불편 유형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도로관리청을 제보자가 알지 못해도, GPS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용불편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 현장조치 사진 등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도로 이용불편 신고의 진행 경과를 알 수 있게 하고 신고자가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 담당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했다. 또한 긴급한 경우나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직접 통화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전화를 통한 이용불편 제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용불편 위치 부근에서 척척해결 앱의 전화걸기 기능을 이용하면 해당 위치의 도로관리청으로 바로 전화 걸기가 가능하여 전화번호를 따로 기억하거나, 메모해 둘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전화로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척척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이 정책프로슈머(Prosumer)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도로표지, 안전시설 개선 등을 제언하는 『도로서비스 평가단』을 구성하였다. 모바일을 통한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본격운영과 더불어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프런티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참여열정 · 홍보역량 ·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총 300명을 선정하였으며, 평가단의 역할 및 사명감, 도로관리의 중요성, 현장활동시 안전관련 사항, 척척해결서비스 사용 방법, 뉴미디어 홍보방법 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도로관리청은 평가단원의 도로서비스 평가 희망지역 · 내용을 검토하여 월간 활동계획을 승인하고, 평가단원은 월간 활동실적서를 작성제출하여 계획대비 세부 활동실적을 증명한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시설 불편 · 위험사항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주기적으로 피드백하여 시설개선 등에 반영하게 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서비스를 운영하여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업체(내비게이션 등)과 불편신고 기능구현 및 정보교환 등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고, 2014년 대국민 서비스 기간 동안은 VMS 표출, 웹툰 · 인포그래픽 · 동영상(UCC) 제작 등을 통해 홍보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도로이용불편정보, 공사정보, 교통(사고)정보 및 제설작업 정보 등과 융합하여 도로관리청의 통합적인 도로관제 및 관련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개방과 공유의 새로운 패러다임,
날씨제보!

국민들이 기상정보를 스스로 만드는 시대 '스마트폰 날씨제보 시스템'

기상청



산을 좋아해 매주 등산을 가는 A씨. 집을 나서기 전에 일기예보를 꼬박 꼬박 챙기지만 산 속에서 갑자기 몰려든 먹구름에 이내 비가 쏟아지는 경우를 많이 당했다. 다시 스마트폰을 열어 기상청 날씨 앱이나 웹사이트에 들어가도 비가 온다는 예보는 없었다. 등산 중에 종종 변화무쌍한 산악 날씨로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지만 이런 국지적인 기상현상은 예측정보는 커녕 실황정보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전국에 560여 개소의 관측소가 설치되어 세계 최고수준의 조밀한 관측자료를 생산하고 있지만 여전히 좁은 지역에서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하고 사라지는 기상현상을 정확하게 포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산악지역과 같이 지형적인 제약조건이 큰 경우, 설치·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관측장비의 운영이 여의치 않아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기상청은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예산의 투입이 아닌 민관협치를 떠올렸다. 2014년 2월 말 현재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는 3,815만여 명.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날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제공받을 수 있다면 ‘기상관측 사각지대’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내 주변의 날씨를 제보한다.

기상청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국민 누구나 주변의 날씨를 기상청에 제보하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다시 국민들과 공유하는 ‘스마트폰 날씨 제보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을 시작했다. 기상청이나 기상 사업자뿐만 아니라 기상 소비자인 국민들이 기상정보를 스스로 만드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제보 방법은 간단하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제보하기’ 코너로 들어가면 맑음·구름조금·흐림·비·눈·진눈깨비·안개·천둥번개·황사·우박·서리 등 해당 기상현상을 선택하여 제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찍은 사진, 동영상, 구체적인 설명이나 감상까지 함께 제보할 수 있어 감성적·실용적인 활용 면에서 기존의 날씨 정보와 차별화 된다. ‘제보날씨’ 코너를 통해 날씨제보 시스템을 활용

하는 사람들이 올린 제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고, ‘관심지역’ 설정을 통해 원하는 지역에 대한 날씨제보만 별도로 확인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My 제보’ 코너에서 자신이 제보했던 사항을 한눈에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한 가지 편리한 사항은 휴대전화 신호를 기반으로 위치가 자동 지정되어 제보자의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아도 제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낯선 곳이나 행정구역상 주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서도 위치 지정의 고민을 덜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걱정도 한결 가볍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기상서비스로 정부3.0 구현

제보된 기상정보는 기상청 서버에서 실시간 수집되어 처리, 저장되며 앱을 활용하는 모두에게 공유된다. 향후 날씨제보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용자간의 닫힌 공유를 넘어 131 기상콜센터 상담 자료, 관련분야 연

구자료 등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으며 기상재해에 대한 신속한 신고와 관련 정보 공유체계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앱은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개발된 초기 버전으로, 향후 아이폰 버전을 출시할 예정에 있으며 2014년 중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과 기상현상을 보다 세밀하게 제보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여 국민들이 더욱 좋은 정보를 쉽게 만들고,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제보를 통해 공유되는 날씨정보가 풍성해지고, 돌발성 기상현상이나 국지적인 기상현상의 포착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기상청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용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귀농 · 귀촌을 준비하려는데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해야할 지 막연하셨죠?

**귀농 · 귀촌의 꿈,
알토란같은 정보로
실현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10여 년간 회사생활을 해오던 A씨는 몇 년 전부터 도시의 팍팍한 삶을 떠나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귀농 · 귀촌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관련 카페 및 블로그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던 A씨는 신문 등에서 농식품부의 귀농 · 귀촌 관련 보도내용을 접하게 되었다. 보도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2013년 귀농 · 귀촌인 통계의 지역별, 연령별 자료는 물론 다각적인 분석 자료, 정부의 지원 사업, 향후 정책 방향 등의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A씨는 자신처럼 도시생활을 하는 이들, 특히 40대 이하 젊은 층이 귀농·귀촌을 고려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점, 정부에서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번 발표를 통해 또한 알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귀농·귀촌에 관하여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귀농·귀촌을 생각하는 도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해오고 있다.

귀농·귀촌 지역 및 이유, 성공사례 등 조사분석 자료공개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귀농·귀촌가구는 32,424가구(56,267명)로 전년에 비해 1.2배가 농촌으로 유입되었다.

귀촌가구는 21,501가구로 전년에 비해 1.4배, 귀농가구는 10,923가구(18,825명)로 1만 가구 수준으로 꾸준히 농촌으로 향하고 있었다.

한편, 귀농·귀촌인 통계는 지금까지 시도별 자료만을 공개하였으나, 이번에는 시군별 통계자료도 함께 발표하여 전국적으로 어느 도, 어느 시군에서 귀농·귀촌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모든 자료는 누구든지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을 통해 공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이 많은 지역 및 이유, 귀농 성공사례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향후 정부의 지원 정책은 물론 지자체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보기 쉽게 정리하여 어느 시군에 어떤 지원 사업이 있는지 확인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귀농·귀촌인을 위한 맞춤형 정착지원 강화정책 펼쳐

농식품부의 귀농·귀촌 정책이 지금까지는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는데 힘써 왔다면, 앞으로는 농촌 활성화 주체로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젊은 귀농·귀촌인은 생산, 가공과 체험을

연계한 6차 산업, 지역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등 농촌의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경북 영주, 33세, 2011년 귀농, 남) 태풍맞은 낙과(사과)를 오픈마켓에서 판매하여 매출이 오히려 크게 늘었으며, 자체 로고(박스) 개발 및 인터넷 판매로 2013년 1억원의 소득을 올림.



(전남 해남, 38세, 2009년 귀농, 남) 해남이 고구마 유명산지인 점을 활용하여 고구마 모종을 온라인으로 판매하여 2013년 80백만원의 소득을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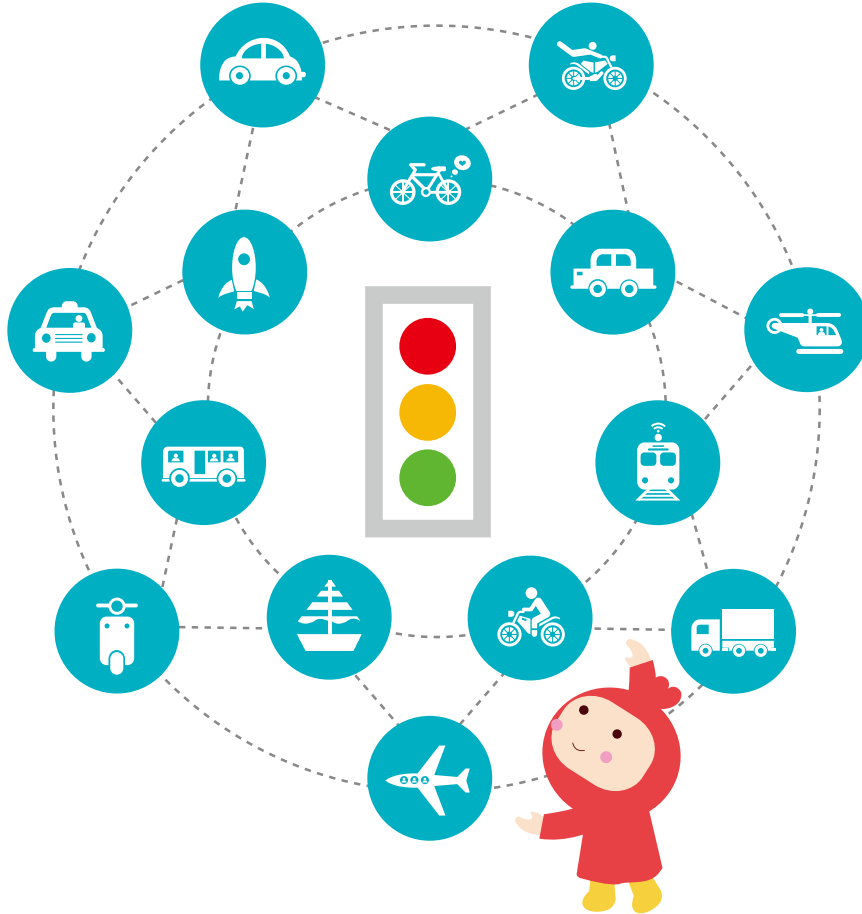
(전남 순천, 40세, 2010년 귀농, 여) 귀농하여 가업을 이어받은 가업승계농으로 1만㎡의 농지에서 녹차 재배 및 가공·체험으로 2013년 1억원의 소득을 올림



(경북 예천, 39세, 2011년 귀농, 남) 가업승계농으로 6.6만㎡의 농지에서 호두, 참깨, 쌀 등을 재배하여 1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2013년도부터 예천군 귀농인협의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음

이렇듯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경제·사회적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맞춤형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A씨와 같이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A씨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우선 초보 귀농·귀촌 관심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귀농·귀촌 교육 과정을 수강할 계획이다. 언젠가 귀농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을 상상하는 A씨의 마음은 한결 따뜻해졌다.



내가 사는 동네의 교통,
내가 디자인 할 수 없을까?

500인 원탁토론,
수원의 미래교통
우리가 만들어요!

경기 수원시



모든 사람의 길이 되는 미래교통, 시민이 디자인

2014년 3월의 마지막 날, 수원체육관에는 50개의 원탁테이블이 펼쳐졌다. 시민이 여론을 만드는 직접 민주주의의 장. 좌장도 남녀노소 구분도 없는 모두가 평등한 원탁에는 500명의 시민이 ‘모든 사람의 길이 되는 미래교통을 말하다’라는 주제 아래 교통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했다.

‘버스 노선이 겹치고 몰리다보니 교통체증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죠’,

‘수원역 부근이 많이 막히는데요, 버스를 화서역 방향으로 출발시키면 체증이 완화되지 않을까요?’

다양한 의견들은 찬반토론 형식이 아니라 참가자들의 주장과 경청을 반복하면서 제시되고 의견 제시 뒤에는 표결권 행사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다.

‘각각의 생각이 있지만 한명씩 생각을 말하고 결론을 내가는 좋은 경험이었습시다’,

‘교통정책을 세우기 전에 각계 각층의 시민의견을 자세히 듣는데 놀랐고 재밌습니다’

소통의 지방자치를 만드는 민주주의 시도

정책을 발굴하는 방법으로 정책의 수요자인 시민들이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수원시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2년 <시민이 바라보는 미래도시 수원>, 2013년 <함께하는 수원교육을 말하다>

에 이어 세 번째 <모든 사람의 길이 되는 미래의 교통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일반시민, 전문가, 운수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새로운 교통정책을 발굴하는 500인 원탁토론을 개최했다.

500명의 시민은 각 테이블에 부분별 무작위로 10명씩 나눠 앉아 교통의 현주소와 시민이 생각하는 미래 교통에 대해 열린 토론을 펼쳤으며,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은 공직자와 교통관계자가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렇듯 원탁회의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이 조사와 토론에 참여하고 이를 뒷받침해 주는 정보통신기술인 무선 웹토론 시스템과 무선전자 투표기가 결합한 21세기형 속의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수원시 500인 토론’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3.0이 추구하는 민·관협치를 실천하려는 표준 모델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앞으로도 수원시는 정부3.0의 확산을 위해 주민체감도 및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발굴하여 지속 실천할 계획이다.



국가통계를 실시간으로
갱신하고 싶은 기관이라면?
나만의 경제지표를 만들고 싶은 개인이라면?

**행법은 공기처럼 물처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KOSIS 공유서비스!
‘국가통계포털(KOSIS) Open API 제공’**

통계청

사례 1 .. 수요예측모형에 필요한 통계가 실시간으로 갱신되었으면!

○○○기관은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책에 필요한 수요예측모형을 개발하려고 한다. 인구, 가구, 물가, 실업률 등 필요한 통계는 KOSIS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시스템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통계란 항상 최신의 자료가 공표되기 마련! 매월 공표되는 물가, 실업률 등을 최신 통계로 관리

하기가 만만치 않다. 공들여 개발한 시스템을 사장시킬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최신 통계를 빠르게 갱신할 지 고민이다.

사례 2 .. 나만의 경제지표를 만들었으면!

대전 서구에 사는 김○○씨. 평소 경제동향에 관심이 많아 주위 사람들에게 걸어 다니는 경제학 박사로 불린다. 그런데 최근 주식에서 크게 손실을 입고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다. 대학에서 IT를 전공하는 아들은 아빠에게 힘을 주고 싶어 품목별 생산·출하·재고, 실업률, 금리 등 유용한 경제지표와 함께 차트로도 보여주는 앱을 개발하려고 한다. 새로 투자할 종목도 같이 선정하고 자신은 앱을 더욱 발전시켜 이익을 창출하고 싶다.

모든 통계는 국가통계포털(KOSIS)로 집중

우리나라는 각 부처에서 필요한 통계를 직접 작성하여 발표하는 분산형 통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 3월 말 현재 389개 작성기관에서 918종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은 원하는 통계가 어느 기관에서 작성되는지 혹은 어디에서 자료를 찾아야 하는지 쉽게 알지 못하는 게 현실. 통계청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통계작성기관

의 통계를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KOSIS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분산형 통계생산 체계에서 집중형 통계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편의를 주고자 한다.

통계정보 공개에서 개방으로 – KOSIS 공유서비스(OpenAPI)

KOSIS는 2014년 3월 말 현재 125개 기관의 583종과 국제통계 및 북한 통계 등 종합통계 5종의 73,814개 통계표, 2억5천7백만 계열의 방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기관을 비롯한 학교, 기업, 연구소 등의 전문 이용자는 물론 학생, 주부 등 일반인도 많이 이용하여 2013년에는 약 611만 명 이상이 방문하였다.

2013년 9월에는 라이선스 제약을 받지 않는 모든 통계에 대하여 상업적 활용까지도 포함하여 사용과 재사용, 배포 등을 허용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KOSIS는 통계표 형태로만 자료를 제공하여서 통계를 계속 이용하거나 재사용하는 이용자는 다소 불편하였다. 통계는 정기적으로 새로운 자료가 공표되는 시계열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물가는 매일 자료가 발표되며 사업체 통계는 매년 자료가 발표되는데, 이용자는 최신 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매년 KOSIS에 접속해야만 했다.

통계청은 이런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을 넘어 이용자가 통계를 자유롭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서비스(OpenAPI)를 개발하여 2014년 3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OSIS 공유서비스는 통계정보를 이용하여 공공 및 민간 등에서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 통계통합DB에 접근하기 위한 인터페이스(API)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KOSIS 공유서비스를 활용하면 기관에서 필요한 통계만을 모은 통계 전용 사이트를 구축하는 경우 KOSIS와 연동하여 실시간 서비스가 가능하며, 기관에서 필요한 통계자료만을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것도 쉽다. 또한, 모바일 앱 등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최신 통계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작업 없이도 바로 KOSIS API를 호출하여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KOSIS 공유서비스는 웹사이트 주소(<http://kosis.kr/openapi>)를 입력하거나, KOSIS 메인화면 하단에 위치한 KOSIS 공유서비스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KOSIS 회원으로 가입한 후 국가통계통합DB에서 수록된 통계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국제통계와 북한통계를 제외한 모든 통계는 상업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도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 포털 이용자라면 별도 로그인 없이도 KOSIS 공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통계를 활용한 창조기업의 탄생

KOSIS는 딱딱한 숫자로 구성된 통계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화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 개인과 관련된 주요 통계를 검색하여 자신의 통계적 위치를 살펴볼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자화상」이나, 여러 통계 속에 나타난 남녀의 차이를 보여주는 「같은 듯 다른 듯 남(男)과 여(女)」 콘텐츠는 통계를 흥미롭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KOSIS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면 관심 있는 통계자료를 쉽게 추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꺾은선이나 막대그래프와 같은 시각적 표현이나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기가 용이해진다.

통계청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통계를 접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유서비스 활용사례를 발굴하고 모바일 앱 경진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KOSIS 공유서비스를 활용하여 민간에서 보유한 다양한 정보와 국가통계를 융·복합하여 새로운 창조기업이 탄생되는 순간을 기대해본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행복이의 정부 3.0 답사기 봄

인쇄일 | 2014년 5월

발행일 | 2014년 5월

발행처 | 안전행정부

발행인 | 안전행정부 장관

기획편집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기획과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 | 02-2100-1864

디자인·기획 | 컬러커뮤니케이션즈(02-333-6555)